

크리스천의 결혼과 가정



Christian Marriage and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지은이 정동수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크리스천의 결혼과 가정

지은이 / 정동수

1판 1쇄 / 2025년 5월 24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정가: 12,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Christian Marriage
and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D. S. Jung—

머리말

성경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주일 대예배 시간에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주제 자체가 개개인의 사생활과도 관련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린아 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으로 호소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40-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현재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결혼과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결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했다가 재혼하신

분들도 계시며 별거 중이신 분도 있고 또는 이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경우의 수가 이처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맡고 있는 목사로서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 또 중·고등학생으로서 이성에 대해 눈을 뜨고 결혼에 대해 조금씩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 결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런 모든 분들에게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갓 결혼한 분들에게는 결혼과 가정 시리즈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을 갖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12년, 그리고 대학까지 더해 최소 16년에서 18년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 본 적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에 대해 배운 적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을 성경적인 인간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

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되는데”(고전 7:24)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특별히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저처럼 잘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계시기에 더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¹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결혼과 가정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 가정의 기원과 목적, 남편과 아내의 의무 및 행

1. 결혼과 가정 시리즈 설교는 2014년경에 이루어졌다. 이 설교들을 책으로 내는 현시점은 2025년 이므로 약 11년의 시간차가 있다. 11년 전에는 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다짐을 하였지만 지금은 어머니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 책에서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할 때에도 11년의 시간차가 있음을 기억하고 읽어 주시기를 바란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모두 바꾸어 현시점에서 글을 쓰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설교의 원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두고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하려 한다. 끝으로 8장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5년 4월 중의 한 설교를 글로 바꾼 것이다.

동 지침, 그리고 결혼의 성공 요소인 오래 참음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녀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보여 주는 예표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40년 이상을 함께하며 귀한 조언들을 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8편의 설교를 글로 정리해 준 김지훈 형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화평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엡 5:31-33)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Contents

1. 결혼과 가정은 영적 싸움이다 · 11

2. 가정의 기원 · 39

3. 가정의 목적 · 67

4. 아내의 복종의 의미 · 99

5. 남편의 사랑의 의미 · 127

6.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 159

7. 결혼의 성공 요소: 오래 참음 · 191

8. 친밀함의 일곱 단계 · 219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1장

결혼과 가정은 영적 싸움이다

¹⁰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¹¹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¹²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¹³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¹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¹⁵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¹⁶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¹⁷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엡 6:10-17)





목사가 되면 매주 주일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일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베드로전후서를 강해해야겠다거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루는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 갈급해하는 성도들을 위해 구원에 대한 설교도 준비해야겠다는 필요도 느껴집니다.

지난 1월, 3주간 미국을 여행하며 아이패드엔 책들을 담아 가지고 가서 책도 읽고 영적 충전도 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접한 책이 제임스 닉스 목사님의 『결혼과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가정과 결혼’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이었습니다. 표지도 핑크색으로 잘 꾸며져 있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¹

1. 제임스 닉스의 책은 다음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keepbible.com/Study5/View/3YI>

이번에는 이 책을 꼭 읽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책 내용을 두 번 정독했습니다. 읽다 보니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심히 준비하여 설교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닉스 목사 부부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많아 7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와서 이걸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는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 가운데는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40대, 50대쯤 되어 결혼 생활을 15년, 20년, 30년 가까이 이어 오면서 권태기에 빠진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서점에 가 보면 결혼과 가정에 관해 기독교인들이 쓴 책들도 있고 비기독교인들이 쓴 책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세미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정보는 넘쳐 나지만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한 책이나 매체가 알려 주는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말하세요.”, “배우자에게 꽃 한 다발을 사다가 주세요.” 같은 조언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술만으로는 결혼과 가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제임스 나스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생활에 대해 기록한 선배 성도들의 글을 함께 살펴보며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심리학자의 말이나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 왜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까?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까요?

저 역시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² 결혼할 당시에는 그런 깊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미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결혼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능하다면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니까”, “적당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에도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구원

2. 1959년생인 우리 부부는 1983년 12월 25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결혼했다.

받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신지도 모두 신학이 담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한 주제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가 곧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가정생활에도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되었으니 결혼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셨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라.” 하셨으며, 남편은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가정과 결혼인데 이번 장의 본문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가정과 결혼과는 무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결혼 이야기라면 창세기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장의 본문으로 삼은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부터 저는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부터 시작하여 왜 결혼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사람을 포함하여,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식물들, 짐승들, 물고기들 등 - 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 등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창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heavenly beings 혹은 angelic beings)을 먼저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 중에는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는 헛된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약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역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계획하신 바에 따라 타락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 그리고 아직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위엄을 보여 주시기 위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는 사람이 천사보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마도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아직 타락하지 않았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지혜의 위대함을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고 온 우주 공간이 조성된 직후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담과 이브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만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결혼과 가정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중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이브를 유혹하였고 아담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그 본래의 목적과 궤도에서 벗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회복하시기 위해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며 메시아 출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여자의 씨가 오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야 하며 그 자녀 가운데 누군가가 메시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결혼과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마귀가 한 일은 바로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인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갈등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일종의 대리 전쟁터이며 결혼과 가정은 이 전쟁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단순히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이 담긴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자손들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500년이 지났을 때 마귀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 타락한 천사들 - 을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시켜 거인 종족을 만들어 냅니다. 이와 같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타락한 혼합이 세상에 퍼졌고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을 택하셔서 인류 구속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며 그 사건이 있는 지약 2,500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결혼과 가정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신학적 목적이 담겨 있음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가정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고 오늘날에도 가정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마귀는 구약 시대부터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됩니다. 동성애로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자기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귀는 일부다처제와 이혼, 첩을 두는 일, 이교도들의 신전에 창녀를 두어 간음하게 하는 일 등을 통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려고 온갖 계략을 꾸며 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구약 시대의 선한 사람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네 명의 아내를 두었고 아브라함은 아내 외에 이집트 여인 하갈을 첩으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유다

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내로 삼는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간음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돌려주신 것이지 다말이 '아, 내가 메시아를 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시아버지와 음행의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성경 해석은 이단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들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돌려 주셨지,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집트 탈출 이후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시며 자신이 신랑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 전체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핵심 무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온전한 결혼과 성경적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의 마지막 시대라 결혼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며 결혼 제도 자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노아의 때

와 룯의 때에 일어난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결혼이 사라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성적인 질서가 파괴될 때, 바로 이때가 인류의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루는 이야기, 곧 결혼과 가정생활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영적 결혼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약 4,000년 동안 세워 오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는 왜곡되고 비틀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릇된 결혼과 가정을 다시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즉, 아무 이유로나 이혼해도 괜찮은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마 19:4-5)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마 19:6)

즉,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박하므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마 19:8)라고 하시며 창조의 질서를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 19:9)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를 셀 때 여인들은 수에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여인들을 존중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라는 도시의 여인, 마르다, 마리아, 향유를 부은 여인 등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끝까지 따라간 이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여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동시에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던 아이들 또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린아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마 19:14)라고 하시며 아이들에 대한 존엄성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결혼과 가정의 원래 목적,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 남녀의 평등, 아이들의 존귀함, 사랑과 질서의 회복임을 줄곧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마 16:18)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드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는 자신의 신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주제는 곧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관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결혼과 가정의 대적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단순한 인간 사회의 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터요 무기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 나라의 선교지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기이므로 우리의 결

혼과 가정이 온전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결혼과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요약해 본다면 마귀는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인간의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싫어하고 이를 파괴하려 하며 이로써 사람들을 위협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인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였고 그로 인해 땅 위에 큰 악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만연했고 온 도시가 죄로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과 가정이 붕괴되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이며 그러한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말세에 유행할 마귀들의 교리 중 하나가 ‘혼인을 금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딤후 4:1-3)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 사

이에서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금이 말세임을 보여 주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남녀의 결혼을 막고 가정을 파괴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심지어 미국도 그렇게 하였습니다.³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고 비록 지금까지는 무산되었지만 머지않아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결혼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결혼한 이후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을 여섯 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3. 미국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때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2024년 현대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44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주셨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4절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합니다(벧전 1:2).

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7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10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맨 마지막 때, 즉 모든 것이 완전히 종결되는 충만한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은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상해 보라고 하며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던 과거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장 10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3장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들이고 하

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 주십니다.

3장 9-11절은 처음에 언급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놓았던 교회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과 그 목적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3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5장에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엡 5:8)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걷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엡 5:18)라는 권면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 이어 22-33절은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며, 부부들 안에 영적 싸움이 존재하기에 성령 충만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교회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5-9절에서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

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후에 그는 10-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사도는 성도의 결혼 생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멀리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 전쟁은 바로 가정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가 없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읽어 보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실제로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일어나며 특히 말세에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영적 전쟁이 더욱더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 관련 영적 전쟁의 실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영역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영역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니라. (고전 7:2-4)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전 7:5)

잘 보십시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이 서로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생활이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부부 생활, 가정생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음행이나 타락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 4:26-27)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마귀의 또 다른 틈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일에 대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노를 1주일, 1년, 혹은 죽을 때까지 품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 분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명시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분노를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요소에 주목해 보면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둘째는 분노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정은 무너지고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되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신갑주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혼과 가정생활은 우리가 매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엡 6:10)

강건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불립니까? 무기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엡 6:11)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갑옷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그곳으로 마귀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엡 6:12)

즉,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사람 간의 갈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마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깨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인간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아, 지금 우리는 마귀의 사악함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인식하며 반드시 성경에 의거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엡 6:13)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약 6,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악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7년 환난기 시작 전에 휴거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이 세상은 더욱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고 룻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말세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각종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날에 우리 모두가 굳건히 버텨 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무기

이 전신갑주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4-17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결혼과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라고 말합니다. 허리가 약하면 설 수 없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가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칫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를 원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뒤에서 가정을 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마귀는 창조물이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도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흉갑은 가슴

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가슴이 뚫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혼 생활의 경우 단지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부간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의 흥감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도는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의 신발을 신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사도는 “믿음의 방패를 취해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부부가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며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은 더 깊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도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상하면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훈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누구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정도의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70세에서 90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영적 싸움을 끝까지 이겨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사도는 “성령님의 검을 반드시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대화가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대화, 부모자식 간의 대화, 이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비로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집사, 지역 인도자, 그리고 섬김에 헌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혼과 가정이 영적 전쟁이고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에는 다음 여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 첫째, 진리가 있어야 하고
- 둘째, 의가 있어야 하며
- 셋째, 화평이 있어야 하고
- 넷째, 믿음이 필요하며

다섯째, 구원이 있어야 하고
여섯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가정생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싸움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 부모 자식 관계 등 모든 삶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의롭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핵심 요약**1. 결혼과 가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이다.**

결혼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 간의 결혼 비유로 가득 차 있다.

2.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신학적 목적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곧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결혼과 가정을 제정하셨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니까 결혼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신학적 구조이다.

3. 성경적 결혼관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절대 기준을 가진다.

세상은 이혼, 동성애, 사실혼을 허용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생 연합을 결혼으로 정의한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한다(엡 5:31-33).

4. 결혼은 영적 무장을 갖추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 말씀)는 결혼과 가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5. 가정 안의 성적인 문제와 분노는 마귀가 틈타는 두 가지 주요 통로이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야 하며, 결혼한 이후에는 성적인 만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전 7장).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엡 4장).

6. 결혼과 가정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으로 인식하라.

마귀는 배우자, 자녀, 부모를 통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의 싸움이다(엡 6:12).

7. 말세에는 결혼 자체가 공격받는다 - 말세의 징조를 인식하라.

동성결혼의 합법화, 결혼 기피 현상, 가정의 해체 등은 딤전 4장과 마 24장의 예언 성취이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선 가정을 세워야 한다.

8. 결혼 생활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싸움이다.

“나는 지금 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늘 자문해야 한다.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이 어떻게 평가될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가정의 기원

2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29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창 1:26-31)





2장에서 우리는 가정의 기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가정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에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 약 500년쯤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국가를 하나의 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국가는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진 이 교회는 성경 역사상 처음 등장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들자면 가정, 국가, 이스라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거나 세우는 것을 허락하신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같은 민족 국가가 바로 서고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내 가정이 바로 서야 하며 그다음에 교회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나와 내 배우자가 함께 세워 가는 가정이 제대로 서야 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기관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정의 붕괴

지금 우리는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큰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정세도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동성애가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현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부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하여 아이를 입양하

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국가가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법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입양하고 키우면 그 아이는 처한 경우에 따라 남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황이 곳곳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개념의 가정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뀐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이제 사회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편 3절에서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들이 무너진다면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간략히 보여 줍니다. 가정이라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거나 국가를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계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릴 것 없이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가정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바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갓 결혼한 분들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까지 모두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독신으로 계신 분들 혹은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 무

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의 책: 창세기

창세기라는 책 이름은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모든 것의 시작, 즉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지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그리고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은 창세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 모든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권, 수십조 권의 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은 유일하게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이 책 즉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이 성경은 특히 시작 부분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도 결국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책,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결혼 상담사나 심리 상담사, 심리학자들을 찾아가면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도 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

경이 말하는 내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100%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온 우주 공간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천상의 존재들, 곧 천사, 그룹, 스랍 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전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¹

이와 관련된 체계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악한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엡 3:1-11).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이 땅 즉 지구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마른 부분인 육지와 물이 모여 있는 바다들을 만드셨고 땅 위에 풀과 채소, 과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궁창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어 그들의 위치에 고정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날짐승들을 창조하셨고 포유류인 고래, 다양한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이날에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1. 천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의 책을 보기 바람
<https://keepbible.com/Pds1/View/5UL>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았다.”(영어로는 “good”)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총 다섯 차례 등장합니다(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신 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총정리하시면서 “그것이 매우 좋았다.”(창 1:31) 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마든 것이 좋았다(good).”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그것이 매우 좋았다(very good).”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세상이 단순히 좋았지만 사람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완성되었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 사실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들은 함께 모이라.” 하시니 물들이 모였으며, “땅과 물들은 풀과 채소와 과일, 날짐승, 물고기, 짐승을 내라.”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은 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직접 손수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도자기 공장 같은 곳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 놓고 돌리며 형태를 만들어 가면 나중에 하나의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런 곳에서 손으로 하는 작업을 보면 만드는 사람의 손자국이 그릇에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윤리적 속성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 2:7)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뜻이며 그 결과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지문, 곧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뜻이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불멸하시는 분이듯이, 사람도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으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동상이나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형상이라는 것은 곧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 1:27)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기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결혼 방식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다처제는 미개한 사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 또는 구약 시대에만 가능했던 제도입니다.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일부일처제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원칙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25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상태를 좋지 못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남자가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가 홀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완전하고 무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남자가 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그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은 흠이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 짝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태는 좋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독신을 주장하지 않았나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신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예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독신의 선물을 받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 10-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남자들)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사람들 곧 내시처럼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러한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두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남자들이 짝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남자든 여자든 짝을 찾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음행이 산불처럼 퍼져 있는 시대에는 남녀가 속히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찍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속히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 결과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식의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의식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집도 갖고 자동차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연세 많은 분들과 막 결혼한 여성들이 나와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 갖는 것을 한참을 미루다 보니 이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잘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먼저 큰 돌을 놓고 그다음에 작은 돌들을 채워 넣어야 그림이 맞춰지는데 작은 것들을 먼저 맞춰 놓고 나중에 큰 것을 넣으려 하니 맞지 않더군요.” 이 말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즉, 결혼이라는 큰 틀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아이, 집, 일 같은 것들을 맞춰나가야 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하려니 모든 것이 엇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부의 첫째 아이도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3월이면 만 7년이 됩니다. 그동안 대학원 치과 공부한다고 하며 아이 갖는 것을 미뤘고 인턴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빚 갚는다고 미뤘으며 남편이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 결국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손자손녀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하고 은근히 얘기해 보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²

성경적으로 볼 때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아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개념을 점점 더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훅업 문화(hook-up culture)’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훅업’(hook-up)이라는 말의 ‘훅크’(hook)는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훅업’이라는 말은 금요일 밤에 일이 끝나고 나서 기분 좋으면 아무나 갈고리로 낚아서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자고 나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과 자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음란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팀 켈러(Tim Keller) 목사님은 리디머 교회(Redeemer Church)라는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³

뉴욕의 중심부 맨해튼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교회는 맨해튼 중심부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 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라는 점입니다. 맨해

2. 지금 큰 아이는 손자 손녀 한 명씩을 낳아 잘 살고 있음

3. 팀 켈러 목사는 2023년 5월에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음

튼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갈 정도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여러 능력까지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청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올바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압박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바로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창조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내가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합당한 조력자, 바로 그 존재가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이며 또한 남자의 조력자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신 후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 자신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는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려고 하셨더라도 아담이 그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암컷과 수컷 즉 한 쌍으로 아담 앞에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아담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창조물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창 2:20).

다시 말해, 아담이 스스로 ‘내게도 합당한 조력자가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을 보시고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 주변을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이에 아담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창 2:23)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가 한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한 일은 사실상 잠자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꺼내셨고 그 주변 자리를 살로 채우셨으며 여자를 만드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홀로 직접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력자이자 동반자의 필요성을 남자가 느끼

기는 했지만 그 조력자를 만드는 실질적인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상대방이 꼭 있어야겠다고 느끼고 ‘동반자가 필요하다’, ‘나를 이끌어 주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결혼이라는 일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잠 19:14)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남편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제 둘째 아이와 막내 아이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라.” 특히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보이(boy)’를 주시도록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지만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내 힘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는 내게 있을지라도 그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의 의무

23절에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며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4. 지금 둘째와 막내딸 역시 결혼해서 각각 2명,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중의 살인가?”

남편들이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부부 사이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구박하는 것은 곧 자신을 구박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엡 5:28)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바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많은 뼈 중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뼈, 가장 좋은 뼈, 가장 중요한 뼈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살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내 살 중의 살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 3:19)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딤후 2:13).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으며 남자를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전 11:7)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자가 마치 남자의 머리 위에

쓰인 왕관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매우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헨리(Matthew Henry)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취하여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 곧 가슴 부위에서 취하여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슴 부위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심장, 곧 마음을 다해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여자를 남자의 심장 근처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유명한 주석에서 나온 내용으로 주례사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여자를 남자의 일부에서 떼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다.”(히 13:4)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결혼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결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계 22:1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을 일삼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음행에 빠져 사는 듯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부다처제 허용과 음행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퍽하므로 너희가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마 19:8)

아무하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창 6:2)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 아무라도 상관없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결혼의 조건

결혼은 네 가지 관계가 충족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적인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면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둘째,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루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래서 성도가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마음의 관계입니다. 감정과 애정이 교류되는 마음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특히 육체적인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으로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고전 7:3)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여 한 육체가 되고 이 안에서 바른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몸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전 7:5)

이 말은 다시 말해 부부는 각방을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한 방에서 함께 자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육체적 관계를 멀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좋은 부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는 더 좋아져야 합니다. 만약 점점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서 부부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육체적 관계, 즉 부부가 정상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⁵

결혼은 평생 지속된다

결혼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로마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책임 있는 관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롬 7:1-2)

요즘에는 결혼하는 부부들이 혼인 서약문을 잘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약의 혼인 서약문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정동수는 그대 오혜미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

5.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 등의 병으로 인해 각방을 쓰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음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과거에는 주례자가 이러한 혼인 서약문을 낭독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네!”라고 대답하며 신중하게 서약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부담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담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혼을 걱정하십니까? 아이를 키울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모든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2-33)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결혼을 깨면 안 된다

인간 사회의 기초는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다처제, 이혼, 동성애 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음행과 이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이혼하는 것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말 2:10)

그러자 14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된 까닭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 (말 2:14)

이 말은 단순히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원칙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말 2:15)

하나님은 원하시면 한 번에 열 명, 백 명, 천 명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남자 즉 아담을 만드시고 한 여자 곧 이브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말 2:15)

즉,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라는 결혼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후손을 낳고 기르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하나로 여기신다는 사실은 창세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육체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한 몸’으로 여기셨으며 이름도 한 이름 즉 아담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니라. (창 5:2)

지금까지 가정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약하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설하신 기관이며 나머지 모든 기관들의 기초가 되는 기관입니다.

둘째,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가정입니다. 그 외의 형태는 모두 마귀가 만들어 낸 불법적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때가 되면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에 따르는 모든 부담과 어려움 그리고 슬픔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지속되는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아내를 내 살 중의 살, 내 뼈 중의 뼈로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형제들도 미래의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조력자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이며 조력자이고 남자의 머리에 있는 영광입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으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으로 주어졌다면 결코 남자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관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왕관이 머리를 해쳐서는 안 되듯 여자는 남자에게 복이 되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

핵심 요약**1.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제도이다.**

교회, 국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주어진 기관이 가정이며, 다른 모든 사회 제도의 기초가 된다.

2. 가정의 붕괴는 말세의 중요한 징조이다.

결혼 거부, 동성 결혼, 이혼 증가 등은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마귀의 전략이다(시 11:3).

3.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통치를 위해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한 외형이 아닌 ‘권위와 목적’을 상징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대표자이다(창 1:27).

4.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결혼 방식이며,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좋은’ 상태이다(창 1:31).

5. 결혼은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적, 영적, 정서적, 육체적 관계가 균형 있게 유지될 때 비로소 참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전 7:3-5).

6.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좋은 배우자는 기도로 구해야 하며, 결혼은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뤄지는 은혜다(잠 19:14).

7. 아내는 남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부부는 하나의 몸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다(엡 5:28, 골 3:19).

8. 결혼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언약 관계이다.

배우자의 죽음을 제외하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결혼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이다(말 2:14-15, 롬 7:2).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가정의 목적

2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29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창 1:26-31)





3장에서는 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들도 그런데 만약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은 일이 년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살에 결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는 최소한 7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20대, 30대는 대부분 100세 가까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결혼 생활을 70년 가까이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긴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혼 전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목적, 성경이 말하는 결

혼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과 자녀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될 많은 어려움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왜 결혼하라고 하는지, 왜 가정을 꾸리라고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이나 취향,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만 해도 서로 다른 점이 매우 많습니다. 비슷한 점보다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삶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결혼 생활 세미나를 찾아 듣기도 하고 가정과 관련된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나 부부 세미나가 열리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또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책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책들이 나오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책들이나 그런 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 실용적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대화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가정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 나갈 것인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것들은 미시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문제들이 아님

니다. 저는 보다 큰 차원에서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인간의 존재 목적과 관련된 큰 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작은 문제들은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 충분히 배우고 해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틀의 목적, 즉 ‘왜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 창조 이유

1장에서 저는 결혼과 가정이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생활은 비장한 각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그 안의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은 그러한 영적 전쟁의 프레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보여 주시기 위해 우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창조와 우주 공간의 창조, 이 모든 것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 사이에 조화와

통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조화와 통일, 질서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영원 전의 어느 시점에서 그 조화와 통일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통일성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체계 자체가 도전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온 우주와 인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혼하여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 됨의 필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그리고 통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검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화평의 때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엡 4:1-6)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으로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둘이나 셋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일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엡 1:8-10)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분의 뜻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하나 됨의 사상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창 1:28)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목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결혼, 그리고 가정의 목적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 2:24)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one flesh’라고 하며 그것은 곧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이 개념을 강조합니다.

또 성경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atonement입니다. 이 단어를 나눠 보면 at-one-ment, 즉 ‘하나 됨의 상태’라는 뜻이 나옵니다. 원래 둘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죄이며 화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듭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4-16)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상태, 그것이 속죄를 통해 하나로 회복되는 것처럼 결혼과 가정도 이와 같이 하나 됨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마 19:6)

우리는 종종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연합이 아니라 “큰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신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단순히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신비라고.’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엡 5:31-32)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신비가 무엇인지 100%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정말 그 안에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구나.” 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1. 우리의 형상
2. 자신의 형상
3.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위격은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역시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단순히 두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신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그러므로 결혼의 신비를 바르게 이해하고 결혼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형상(形象)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폐 - 일만 원권이나 오만 원권 - 를 보면 그 안에 어떤 인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같은 사람의 모습이 들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히 1:3)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과 본질을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등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골 1:15)

…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4:4)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벧후 1:4)라고 말합니다.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곧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요일 3:2)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들 곧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들의 호칭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가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롬 8:29)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의 1차 목적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가장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의 1차 목적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혼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얼마나 일치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왜 해야 하느냐고 누군가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 결혼해야 합니다.”

가정을 왜 꾸려야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형상이라는 이 개념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차적인 것들에만 집중할 때에는 결국 그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사소한 문제들을 먼저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결혼과 가정의 첫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결혼과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자녀가 잘되는 것,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 가정의 평안이 유지되

는 것 등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결혼과 가정의 구체적인 목적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큰 목적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만족시키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들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자녀들 앞에서 좋은 증인이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중에서 특별히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생활, 부부 관계, 자녀 양육,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벧전 1:14)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 행실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벧전 1:15)

이 말씀에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벧전 1:16)

결국 결혼과 가정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므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결혼과 가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마귀의 타락을 통해 무질서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

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 14:13-14)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내가’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마귀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으려 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깨뜨린 마귀의 행위를 용납하실 수 없으며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순종과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치된 모습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상, 즉 질서와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 주신 삶은 정반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빌 2:3-4)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빌 2:5-8)

이 일을 하지 못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여 주신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이 형상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마귀가 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시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며 그러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 하나님 안에서의 복종,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과 가정의 둘째 목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둘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제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결혼과 가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회적 관습이나 감정에 따라 결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결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왜 해야 합니까? 가정은 왜 이루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 신비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엡 5:22-25)

그리고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엡 5:31)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2)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은 단순히 아담과 이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신비, 즉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꾸려 보아야 이 신비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은 교회가 자신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사랑,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큰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할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단지 제 아내가 좋아서 결혼

했습니다. 벌써 그 일은 삼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처럼 결혼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삼십 년이¹ 지난 지금, 목사가 되어 결혼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해 보니 ‘결혼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엄청난 신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뜻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도 단순히 “좋아하니까 결혼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복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의 셋째 목적: 경건한 자녀들의 출산

셋째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승할 다음 세대가 필요

1. 지금은 결혼한 지 41년이 되었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씨, 경건한 후손이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 이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사람들, 곧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를 계속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 1:28)

이 말씀은 곧 결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람이 하기로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많이 낳고 번성하며 온 땅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독립교회에 가 보면 아이들을 다섯 명에서 열 명씩 낳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많이 생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크리스천들이 가능한 한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열하게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많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더 쉽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의 철학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잠 18:22)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를 모두 포함하는 진리입니다. 남편을 얻는 자도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의 호의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 원한다면 청년들은 결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경건한 씨를 많이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던 명령을 노아의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창 9:1-2)

사회의 기본 골조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단지 돈이나 오락, 교양과 같은 것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한 가정, 이것이 사회의 질서와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축복하는 사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마귀가 결혼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동성애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방해하며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키워 내야 합니다. 모세는 이교도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가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키워 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참된 목회자들을 우리 안에서 길러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합니다. 결혼하여 좋은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려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일부터 하십시오. 결혼하여 아이들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좋은 가정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사는 자녀들을 길러 내는 가정,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일, 결혼과 가정을 통해 이루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다음 세대, 곧 경건한 자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쉰다섯 살이 되었습니다.² 언젠가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누군가가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누가 갑자기 들어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경건한 아이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혼과 가정을 그런 영적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가정의 넷째 목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넷째 목적은 동반자와 함께 영적 싸움을 이겨 내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왜 결혼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싸워 줄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전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 한

2. 지금은 65세임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도와줄 자가 없으므로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전 4:10)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서로 기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사실을 더욱 실감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차려 주는 밥상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제가 몸이 아파 끙끙 앓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것을 바꾸어 주고 다시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을 갖게 해 주는 사람 역시 제 아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동반자가 일으켜 세워 줘야 합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싸워야만 오래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4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오? (전 4:11)

이것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따뜻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성령님, 이 셋이 함께 세 겹 줄을 이룬다면 세상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다섯째 목적: 음행을 피하는 것

다섯째 목적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반드시 결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적인 유혹, 곧 음행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유혹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며 마음속에 음행의 요소가 생겨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돌지니라. (고전 7:2)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혼자 살면 이성과의 싸움에서 지기 쉽습니다. 음행에 넘어지는 목사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의 사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음행에 넘어져서 사회에 큰 해를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승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어떤 유혹과 음행의 공격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은 결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영적 싸움에 참여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의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결혼과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롬 1:24-27)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결혼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며 성적 타락, 즉 동성애와 음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통일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통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 됨의 질서와 본질적인 하나 됨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하나 됨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서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결혼과 가정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 주기 위해서도 결혼과 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기에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세대만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싸움을 계승하여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결혼과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은 낭만 중심의 결혼이 아닙니다. 역할 중심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과 역할을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결혼할 때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됩니다.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요약**1. 결혼은 하나님의 '하나 됨'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질서와 통일, 조화를 원하셨고, 결혼은 그 하나 됨(one flesh)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제도이다. 이 '하나 됨'은 단순한 육체적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통일을 나타낸다.

2.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큰 신비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실제적 예시이며, 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복종의 질서를 증언한다.

3.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질서, 거룩함을 결혼 생활과 가정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 질서, 순종을 포함한다.

4. 결혼은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단지 인구 증가가 아니라 경건한 씨, 즉 하나님의 후손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가정은 신앙 계승의 중심 통로이다.

5. 결혼은 혼자가 아닌 '동반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서 4장 말씀처럼 둘이 함께 있을 때 더 강하며, 세 겹 줄(남편, 아내, 성령)은 끊어지지 않는다. 영적 싸움은 부부가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6.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어책이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전 7:2) 결혼은 성적 유혹과 혼란이 많은 말세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7. 결혼은 역할 중심의 소명이다.

결혼은 감정 중심이나 낭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역할 중심’의 제도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8. 결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계획이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결혼은 교회를 이어갈 일꾼을 준비하는 영적 계승의 터전이다.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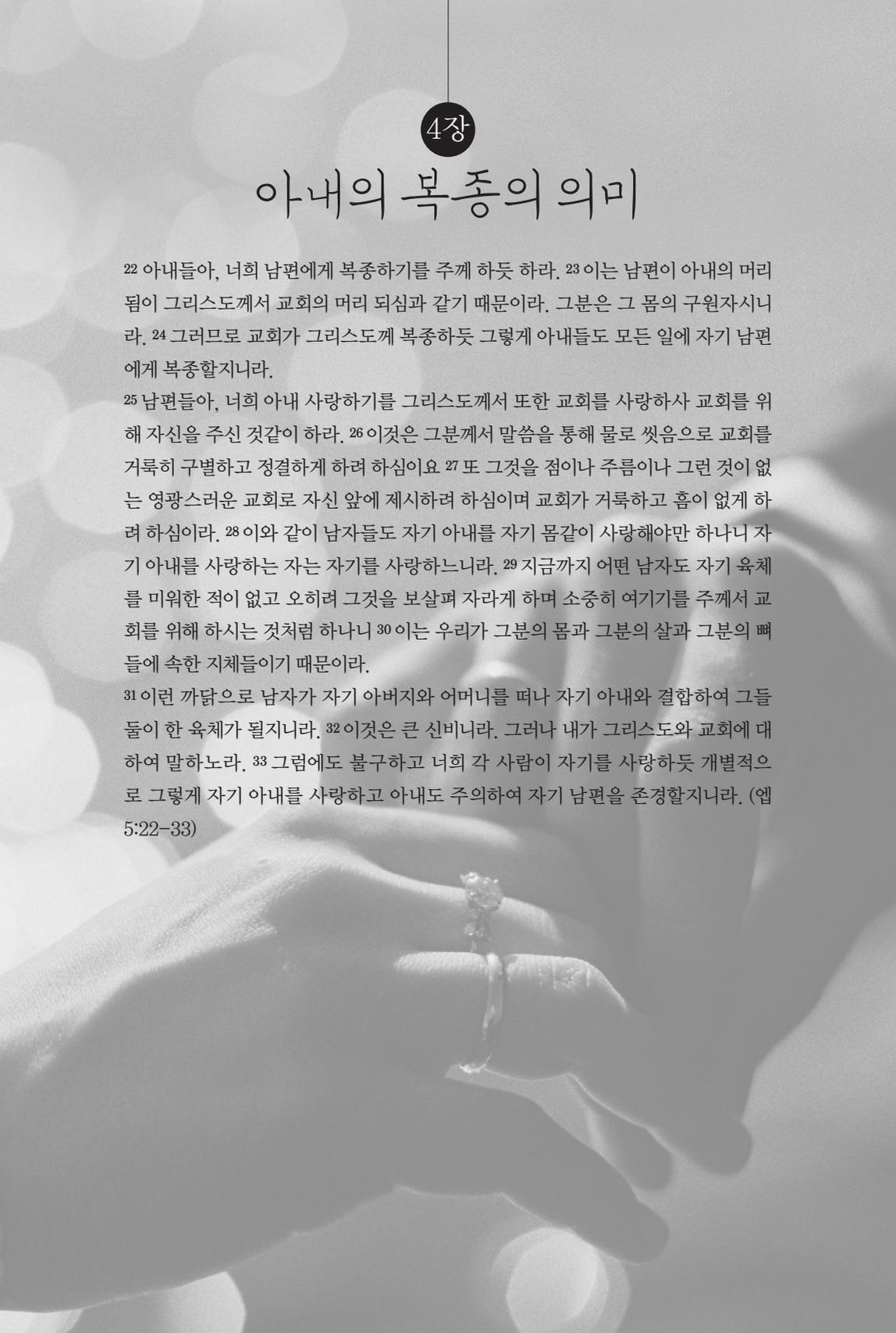


아내의 복종의 의미

22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26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 또 그것을 접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29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피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30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31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엡 5:22-33)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는 결혼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즉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2)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5:24)

이처럼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25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엡 5:25)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엡 5:28)

즉, 남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복종, 큰 문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아내의 복종'입니다. 지금까지 묵회하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입장이나 개인적인 편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연구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전하는 말씀은 제 개인의 생각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목사가 남자니까 역시 남자 편을 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는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흔히 여성 상위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통치자가 등장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우스갯소리 중 하나는, 많은 가정에서 여성이 51%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이런 조크를 하셨습니다.

천국 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서 있었다가 천국에 들어온 남성들을 두 줄로 세웠습니다. 한 줄은 “제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서는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우리 집은 아내가 주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서는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남성들이 아내가 주도했다는 줄에 서 있었고 자기가 주도했다는 줄에는 단 한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제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왜 이 줄에 계십니까?” 그러자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제 아내가 여기 서라고 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로는 남편이 가정을 주도하기보다는 아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풍자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표현으로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그 머리를 돌리는 목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목소리가 많이 강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을 나누며 남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결코 아내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종이 아닌 것

먼저 복종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2)

여기서 ‘주께 하듯’이라는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남편을 향한 복종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주인을 향한 노예의 복종’이 아니라, 가능한 한 남편을 세워 주고 존중하고 높여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입니다.

…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엡 5:33)

이것이 바로 아내의 복종입니다. 무조건 조용히 있으라거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ubmission이며 이것은 그리스어에서도 ‘질서 속에 자발적으로 위치를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억지로 누르고 통제’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 질서 안에서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 주는 행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남편이 간음하거나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부 관계는 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번 주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자매님들께서는 성경에 적혀 있는 복종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진정한 변화와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는 뜻입니다. 즉,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자신을 조금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 조금 낮아질 때 남편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하나의 혼으로서 평등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간의 창조와 결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아내가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춰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복종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존재하고 그러한 질서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까지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질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해 아내가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남편은 절대 자신을 낮추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엡 5:15)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엡 5:21)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 나오기 바로 전 구절들에서 성경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종의 원리가 먼저 제시된 뒤에 구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원리를 따른다면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낮춰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를 위해 자신을 낮춰야 하고 성도도 목사를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즉, 모두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일반 원칙을 제시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모두 서로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가정이라는 기관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

이제 복종이라는 행위, 즉 자신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의 순서 때문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다음에 이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순서상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

셨기 때문에 여자는 그 순서를 존중하여 여자가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딤후 2:13)

둘째, 창조의 기원에 따른 이유입니다. 남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남자와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직접 지으셨지만 여자는 흙으로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 있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남자가 없이는 여자의 출생이 불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창 2:22)

창세기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고전 11:8)

셋째, 창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고전 11:9)

이처럼 창조의 순서, 창조의 기원, 창조의 목적을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때, 여자는 남편을 위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복종의 의미입니다.

넷째,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아이가 스스로 붙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붙여 줍니까? 부모가 붙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여자가 스스로 “나는 여자다.”라고 말하였습니까? 아니면 남자인 아담이 그녀를 바라보며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라고 말하고 “그녀가 여자라 불리리라.”라고 선언하였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권위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창 2:23)

다섯째, 남자가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남자를 택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6-17)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

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자는 이 명령이 주어질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명령이 주어질 당시 여자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실 때 남자를 인간의 대표자로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여섯째, 여자가 먼저 범법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지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지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딤후 2:14)

즉, 영적 명령은 남자가 받았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계획을 세울 때 남자를 통해서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여자를 통해 죄를 유입시켰습니다. 즉, 마귀는 여자의 약함을 보고 남편의 권위에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여자에게 접근하여 여자를 넘어트렸습니다. 이처럼 죄의 근본적인 통로가 여자를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권위와 질서 아래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창 3:9)

선악과를 처음 먹은 사람은 이브입니다. 분명히 이브에게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브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즉 남자가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창 3:16)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과 먼저 의논하고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먹고 그 이후에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는 식의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협의하며 남편이 앞서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딤후전 2:12)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고전 14:34)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다’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스피크’(speak)입니다. 이것은 ‘선포하다’ 또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다’라는 의미이지 단순한 대화나 의견 제시, 교회 일에 관한 제안까지 막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성경은 공적인 권위 행사나 가르치는 일에서 여자가 남자를 앞서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을 나누고 목사에게 질문하거나 조언하는 일은 충분히 허용되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남자를 가르치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는 반드시 남자여야 하며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딤후전 2:13-14)

15절로 가면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딤후 2:15)

이 구절을 보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남편과 아내를 지칭할 수도 있고 여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수태와 해산을 거치는 전 과정 즉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브는 그 유혹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자에 비해 영적으로 조금 더 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 집회에서 뒤로 쓰러지거나 방언을 하고 진동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에게는 감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남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마귀가 이용하여 여자를 넘어뜨리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인도를 받아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전 11:7)

즉,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남편의 영광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 주며 남편의 영광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합 정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조력자이지 남편 위에 서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거나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휘관이 없다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300여 명을 뽑으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국회 의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위원회를 뽑을 때도 제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집사회가 구성되면 대개는 집사회의 리더를 세웁니다. 축구팀에도 주장이 있습니다. 남편을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팀의 주장은 남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아주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노라.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고전 11:3)

여러분께 여쭙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은 모두 동등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이 아들, 그다음이 성령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위격이 모든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즉, 권위의 구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

성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버지, 제가 이 땅에 내려가 인류의 구속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원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권위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 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고 평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니라.”(빌 2:5)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으며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

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거나 혹은 영적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휘할 지휘관이 필요하고 축구에서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를 이끄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 가정에서의 지휘자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主)께 하듯”이란 말씀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집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아내가 그 남편 아래 자신을 두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학력도 더 높고 직장도 더 좋은데 말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자가,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더욱더 자기 남편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인물이 뛰어나고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도 남편을 세워 주는 것이 남편의 영광이 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아내요,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남편을 세워 주는 자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주일 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의 반에 캐서린이라는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사가 캐서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먼 나라에서 이민 온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가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해서 아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가정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 어머니는 남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그 집의 네 살짜리 아이도 아빠 이야기를 계속하며 “이제 아빠 오실 시간이 되었지요?” 하며 엄마에게 묻기도 하고, 나이 든 딸도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게요.”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사가 돌아가려고 했더니 캐서린이 말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렸다가 우리 아빠 좀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이 교사는 ‘이 집 아빠는 정말 특별한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아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학교 교사는 기다리는 동안 ‘분명히 멋진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가 있겠지...’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평범했고 악센트가 강한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있었고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교사는 이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고 존중이 흐르는 것은 남편의 외모나 실력 때문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정 안에서 존중하며 높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매님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특히 자매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가정을 보면 많은 경우 그런 가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내가 성경을 통해 남편에게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니 아이들 역시 “엄마도 아빠 말 안 듣는데 내가 왜 들어야 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 내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이들도 어머니를 불순종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10년, 20년간 지속되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육적인 이유나 세상적인 조건인 돈, 직장, 외모 등으로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민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멩예를 같이 메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민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멩예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를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고후 6:14)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짝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엡 4:15-16)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몸의 각 부분이 머리에게 지배를 받으며 동시에 모든 것을 공급받고 움직이게 되어 결국 몸 전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정과 교회가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왜 이토록 질서가 없고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술 취한 사람에게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보겠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인데 이 둘이 따로 움직이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저 사람 지금 발작 중인가 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것은 혼란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처럼 경쟁 관계가 되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연합된 관계이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고는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제부터 아내는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대.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종의 의미는 아내가 혼자 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는데 몸이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종의 의미는 머리(남편)의 뜻과 분리되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혹은 남편보다 앞서 나가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아내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머리가 ‘살아가라’고 신호를 주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움직인다면 그것 역시 올바른 작동이 아닙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가 되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질서 있는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남편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팀에는 주장을 맡은 선수가 있습니다. 주장이 전체 팀을 바라보며 지휘하고 팀원들은 주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기를 잘 운영하려면 주장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를 보며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서 아내는 “내가 주님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도 복종하며 나 자신을 낮추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 질서를 위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5:24)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부부 싸움할 때 남편들이 이 구절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가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반박하죠.

“당신은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준 적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성경 구절을 무기로 쓰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일’이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제외될까요? 남자가 여자의 양심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각자 자유로운 양심을 가진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남편이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국가에 충성해야 하지만 만일 그 국가가 우상을 세워 놓고 그것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아내의 양심을 억누르려 한다면 그 부분까지 아내가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저촉되는 문제까지도 남편이 ‘모든 일’이라고 주장하며 아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로서 복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심지어 40년이 넘었는데도 아내의 복종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처음에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요. 분명히 좋으니까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내가 이 남자를 존중하고 사랑했을 때의 그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가? 그 관계는 지금도 회복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들께 이 질문을 꼭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자매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저는 도

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며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일, 그분의 규약에 따라 상대방과 결합하여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살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단순한 인간관계나 일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맹세 즉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들 또는 형제님들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마 5:43-44)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마 5:46-47)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내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리들도 자기에게 잘해 주는 자에게는 잘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은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내 남편은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살리고 존중하고 세워 주는 것이 세리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마 5:45)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 특히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과 하나가 되어 몸과 머리가 연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가정생활에서 특히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든 세워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다.”라는 인

식을 심어 주어야 자신도 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인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자매님들이나 앞으로 결혼하게 될 자매님들이 이런 올바른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

핵심 요약**1. 아내의 복종은 성경적 질서의 표현이며 억압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복종은 노예처럼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남편을 세워 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엡 5:22, 24, 33).

2. 복종은 서로를 낮추는 삶의 한 부분이다.

에베소서 5장 21절처럼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복종의 이유는 창조 질서에 있다.

성경은 아내의 복종을 창조의 순서(아담이 먼저), 기원(여자는 남자에게서), 목적(남자를 위한 조력자), 권위(남자가 이름을 지음), 대표성(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 그리고 타락의 순서(이브가 먼저 범죄)에 근거해 설명한다.

4. 복종은 남편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높이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전 11:7).

5. 복종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태도다.

“주께 하듯”(엡 5:22) 복종하는 자세는, 단순히 인간 남편을 향한 복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순종이다.

6. 복종은 역할의 차이일 뿐, 우열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질서가 있듯(고전 11:3)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되 역할이 다르다.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7. 복종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권위의 본을 보이는 일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결국 가정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8. 복종은 믿음의 문제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복종은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서약이다.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마 5:43-47).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남편의 사랑의 의미

22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26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27 또 그것을 접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29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피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30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31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엡 5:22-33)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조금 부담 없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는데 조금은 마음이 가벼운 상태입니다.

남편의 의무: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엡 5:25)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

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엡 5:28)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I love you.”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고 또 했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들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사랑’(love)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권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좋아할 때도 l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I love that car(난 저 차를 정말 좋아해).”

“I love chocolate(나는 초콜릿을 사랑해).”

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경우 ‘사랑한다’는 표현은 ‘좋아한다’는 감정에 기반한 표현입니다. 왜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벨보이가 먼저 달려 나오고 초라한 차를 타고 가면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이고, 단맛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이유는 먹는 순간 그것이 입맛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것이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 집이 좋은 이유도 그곳에

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다 매우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욕구를 채워 줄 때는 사랑하지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고 결국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자신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나의 욕구를 채워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엡 5:25)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며 희생적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고 만족감을 주는 대상에 대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어려움과 연약함, 부족함, 실수,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며 180도 돌이키는 회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 3:10)

의로운 자는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빛나간 존재

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범법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나... (롬 6:23)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 더러운 죄의 상태로 죽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라?”(롬 7:24)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이다.”(딤후 1:15)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생각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수치심을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범법들을 기억하지 마시고”(시 24:7)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영웅호걸도 소용없고 빈부귀천도, 유식무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움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라.” 하셔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자들, 그런 비참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롬 5:6)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그런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7-8)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

운데 아들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형편없고 비참한 사정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그들의 몸을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를 버리고 시간이라는 제약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래 영원하신 분으로 시간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무한한 차원의 존재이신 분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써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사시다가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동차도, 집도, 안경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시 8:3-4)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 먼지보다 작으며 쓸모없는 존재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
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엡 5:23)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몸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우리에게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전혀 없
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몸의 구
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을 단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무궁토록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하나님 보시
기에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
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무궁토록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엡 5:26)

즉,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접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7)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고 바로 그 사랑으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과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자로서 그 저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형제님들께서도 노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가 남편의 욕구를 채워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여자와도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누구나 다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껴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점점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구의 구원 투수를 아시지요? 남편은 아내의 구원 투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셨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위해 그렇게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2장 4-5절을 보면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딤후 2:4-5)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내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거운 명령은 남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일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에도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본래부터 사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흠 없이 거룩한 자로 자기 곁에 두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그 이후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실제로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 가정을 상담하고 지켜보니 가정의 문제 중 75%는 남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왜 그럴까요? 남편의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실패도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데이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 후부터 실제로 데이트가 시작된다.”

남성들은 결혼 전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결혼 이후부터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편들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아직 살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특별히 남편들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으

면 내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아내를 비난하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목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당신은 이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모든 남편들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네.”라는 대답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날까지 나는 당신을 돌보아야 할 존재로 여기고 당신을 영적으로 구원해야 할 구원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거룩하게, 자신에게 속한 자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6-27)

여기서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은 내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점점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 원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아내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면 단지 이 여인만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까지도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다 받아들이고 품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들이 요즘 사귀는 여자 친구를 얘기하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콩깍지가 씌어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실망스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함께 지내다 보면 “이건 내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눈썹이 진짜가 아니었다든지, 잠잘 때 침을 흘린다든지, 코를 골거나 잠꼬대를 한다든지 등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음식도 전혀 못 하고, ...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편은 이런 아내를 성화시키는 - 거룩하게 만드는 -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내에게 문제가 보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성화시키며 고쳐 주시는 것

처럼 남편도 아내를 고쳐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시면 옛 성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쳐 주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어떤 과거의 문제가 있는지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지 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남편이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탓하거나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는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자기에게로 구별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할 때 보면 싱크대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막힐까요? 작은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저 밑에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안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물이 안 내려가니까 이 싱크대를 버려야겠구나.”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가서 고치거나 아니면 배관공을 불러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도구를 가지고 와서 뚫기 시작합니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구멍 하나가 먼저 뚫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결국 완전히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물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살다 보면 작은 일들이 쌓여서 부부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싱크대를 구하듯이 다른 아내를 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아내를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들이 그 문제의 막힌 부분을 뚫어야 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엡 5:25-26)

아내의 과거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강압적인 가정에서 남편이 자랐다면 남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장하던 가정에서 아내가 자랐다면 아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다 수용해야 합니다. 다 수용하고 희생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점과 주름을 제거하셔서 결국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7)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 보면 아내에게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주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적인 요소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내적인 주름도 생기고 외적인

점도 생깁니다. 그 점과 주름을 누가 제거해 주어야 합니까? 남편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큰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도 화를 안 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그게 아내를 거룩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29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를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는 것처럼,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피며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엡 5:28-29)

젊었을 때는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아내를 사랑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곧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

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보살피듯이 아내도 그렇게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보살펴야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 잘 돌봐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그중 하나는 결혼을 했고, 이제 둘은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¹ 그래서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떤 남자를 데려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세 가지 조건을 말해줍니다. 아빠와 엄마의 행복이 아니라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생 영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성이 좋아야 합니다. 남편의 인간성이 좋아야 가정에서 폭력을 쓰거나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성이 좋아야 합니다. 여전히 아내가 남편에게 맞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남편도 아내에게 맞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폭력을 포함해 행실이 나쁘지 않고 인간성이 좋은 남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과 인간성이 다 갖추어졌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매일 밥을 굶게 된다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안에는 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무엘기상 25장을 가서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에게

1. 지금은 세 명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두고 있음

는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나발의 양 떼를 보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청년들을 보내 음식을 나눠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음식들을 주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하고 화를 막습니다. 현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 후 그다음 날 나발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발은 돌처럼 굳어져 열흘쯤 뒤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는 영적인 일과 지적인 일에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능력 중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온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7)

그러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고통을 감수하며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창 3:18)

물론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남자는 가족, 특히 아내를 위해 땀을 흘리며 희생하며 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남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딤후 5:8)

남편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아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결심을 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땀을 흘려서라도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겠다.” 이와 같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내와 가정을 부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런 남편이야말로 아

내와 가정의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서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14년 동안입니다. 자기 외삼촌을 위해 속임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외삼촌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7년을 단지 며칠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얻기 위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삼촌이 그를 속여서 또 다른 7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결국 14년을 일한 후에야 그는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 사이에 라헬뿐만 아니라 아내가 세 명이나 더 생겨 결과적으로 아내가 네 명이 되었고 자녀도 11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은 이 가정을 어떻게든 책임지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 밑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었습니다. 외삼촌과 처남들이 야곱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들에게 “우리가 도망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삼촌 몰래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외삼촌이 쫓아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기 외삼촌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창 31:38)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지금까지 자기가 충실하게 봉사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0절 말씀을 우리 남편들, 형제님들이 함께 마
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삼켜 버렸고 내
눈에서는 잠이 떠났나이다. (창 31:40)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잠까지
설쳐 가며 희생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바로 이러한 각오
가 되어 있어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곧 교회를 양육하신 예
수님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
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엡 5:28)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히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
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음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영원

히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본받아 남편들이 바로 그런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며,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이 온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엡 5:33)

이 말씀에서 ‘각 사람’이란 곧 남편을 의미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라는 말은 곧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도 주의 깊게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존경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더라도 ‘나는 이 여자를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보면 아내는 아이들을 보느라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

고 짜증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여자와 더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몸의 구원자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자는 그 몸을 파괴하는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아내의 과거까지도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진정한 남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따지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인도자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구원자’입니다.

결혼 생활의 원수

이제부터는 결혼 생활을 망치는 원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이 화를 낼 때 스스로 합당한 분노 즉 의로운 분노를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분노,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분노와 같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는 바로 이 분노가 가장 큰 원수입니다. 분노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관계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 자신까지도 파괴합니다. 이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는 물론 가정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분노는 그 어떤 요소보다 결혼을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노를 제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은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엡 4:31-32)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골 3:8)

특히 골로새서 3장 19절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질게’라는 표현은 ‘쓴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골 3:19)

잠언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의 지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 16:32)

화가 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성화의 신비는 바로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엡 4:31)

결혼은 매일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교만과 자랑은 내려놓고 배우자와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복음의 핵심이며, 결혼의 성공 전략입니다.

작가이기도 한 스콰이어스(Josh Squires)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을 집에 데려올 때 나는 그에게 다음의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할 것이다.”

첫째, “내가 잘못했다”(I was wrong).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싫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만의 문제입니다. 명성에 흠이 갈까 두렵고 혹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되며 자신의 권위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7장과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롬 7:18-19)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8)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무죄이고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10%, 당신이 90%의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결국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둘째, “미안하다”(I am sorry).

죄를 지으면 우리는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단지 말로만 사과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시편에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어,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1-3)

진실하게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것은 마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영혼

을 살리는 태도입니다.

셋째, “제발 용서해 주세요”(Please forgive me).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용서라는 놀라운 치유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다시 교제의 문을 열어 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 그것이 크든 작든 -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매일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부부는 언제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믿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마 18:22)

남편들과 아내들은 이번 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기 바랍니다. 남편은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이 되겠다.”라고, 아내는 “그 희생의 사랑에 보답하여 남편을 세워 주는 아내가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

핵심 요약**1. 성경적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다.**

남편은 아내를 단지 ‘좋아하는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는 감정이 아닌 의지적 결단이며,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감싸는 사랑이다.

2.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이자 성화의 도구다.

예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듯, 남편은 아내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영적 인도자다. 단지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아내를 성화시키는 데 헌신해야 한다.

3. 경제적·영적 책임은 남편의 의무다.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책임지고, 영적 질서와 인도를 감당해야 한다. 이는 창세기와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처럼 남편의 부양책임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4. 사랑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보살피는 것이다.

성경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엡 5:28)고 명한다.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존중하며, 자기 몸처럼 돌보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아내의 문제는 곧 남편 자신의 문제다.

5. 결혼은 아내의 과거까지도 품는 언약이다.

결혼은 현재뿐 아니라 아내의 과거와 모든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약속이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점과 주름까지 제거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버림이 아닌 변화의 사명임을 강조한다.

6. 분노는 결혼의 가장 큰 원수다.

결혼 생활에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고, 이는 복음적 삶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성경은 모든 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라고 명한다.

7. “사랑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세 가지 고백

성숙한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고백은 회개와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의 열쇠이며, 복음이 실현되는 삶의 태도다.

8. 남편의 사랑이 먼저다.

성경은 아내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 남편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자연스럽게 존경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처럼 살 때, 가정은 복음적 질서 안에서 회복된다.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²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³ 너희는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⁴ 오히려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⁵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⁶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⁷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벧전 3:1-7)





이번 장에서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아이러니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큰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시대의 아이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바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책이 쓰였고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었으며 그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어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정, 남자와 여자, 성에 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넘쳐 나는 때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어떠한 존재다’, ‘여자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책을 통해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 ‘남자와 여자’, ‘성생활’, ‘가정생활’, ‘부부 갈등’ 등에 대해 검색해도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상담 책과 카운슬링 책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처럼 정보는 넘쳐 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결혼과 가정 생활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이 가장 많이 망가져 있는 시대가 바로 현시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혼율이 높고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시대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가정이 더 많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바이블 벨트(Bible Belt)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남부 텍사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보수적이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근본주의 침례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의 이혼율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이혼율이 다른 지역의 이혼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결혼과 가정이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결혼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결혼에 성공하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가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이번 장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특히 불신 남편을 둔 자매들과 크리스천

남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즉 남편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아내의 복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 모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 즉 이교도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의 오른쪽에 속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성도들도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벧전 1:14-16)

그는 그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이니라. (벧전 1:18-19)

우리는 다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벧전 1:23)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성도들에게 “너희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성도가 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9)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으며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이 성도들이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

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들 주변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벘전 2:12)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당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감사한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벘전 2:19)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21-25절에서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 내시고 마침내 영광의 주가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너희의 역할 모델로 삼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말은 내가 어

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을 본보기 삼아 따라가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어찌 되었든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며 그 사람의 행적과 인품과 삶의 태도를 본받으면 그 사람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영웅전을 읽으라고 권하며 좋은 사람의 일기를 읽고 인생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사무엘기상하를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책들에서 깨닫는 바가 없으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권하는 이유는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 등을 읽으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엘기상하를 읽어 보면 그 안에 사무엘, 사울, 다윗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는 “사울을 제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을 제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는 되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라 누구를 롤 모델로 삼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으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지요 참 사람이신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전적으로 불신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며, 로마 제국, 즉 이교도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푸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의 상속 재산과 보상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한 채 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한 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가정의 화평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3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베드로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첫 부분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하고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가 누구처럼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먼저 자매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매들이냐면, “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불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즉 불신 남편을 둔 자매님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려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선포하면 예나 지금이나 자매님들이 더 빨리 변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매님들이 더 많이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한다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전파된 도시들 가운데 자매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남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우 제가 이혼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아내/남편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고전 7:12-13)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결혼 전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몰랐지만 결혼 후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하

는 한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아내는 이혼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종은 아내의 의무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벧전 3:1-2)

이러한 환경적 배경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불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 남편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신 남편들이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구원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을 뜻합니다.

제가 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의 복종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는 일반적으로 병사가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장교 중 가장 높은 사람이 대장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병사 중 인품이나 지혜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품이나 지혜만 놓고 보면 병장이 대장보다 훨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

까? 반드시 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인품이 좋다고 해서 대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병장이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면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의 복종은 결코 수치나 열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기 위해 그 권위 체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가정 내 권위에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종은 기회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벧전 3:1)

심지어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정숙한 행실로 믿음과 가정생활을 하면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남편을 예수님께 인도할 목적으로 복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불신 남편들이 설교나 아내의 말로 변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이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로 권해도 그것만으로 남편을 설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이 여기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그들을 얻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 없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말만으로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아내가 잔소리하듯 계속해서 말하는 방식으로 남편이 마음을 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 아내가 저녁 식사를 정성껏 차려 놓고 이제부터 설교를 틀어 놓으면 남편이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설교를 크게 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설교를 크게 틀어 놓으면 남편이 집 바깥으로 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가게 되면 결국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의 성품과 행실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성품과 행실이 좋아야만 남편이 성경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잔소리나 논쟁을 통해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며 특별히 논쟁을 통해 바뀔 남편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대체로 자존심이 강하므로 논쟁이나 말다툼을 통해 설득하려고 한다면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복종하고 이해심을 가지며 남편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이 불가

능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남편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남편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따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최선을 다해 바른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을 통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감화와 감동을 통해 ‘나도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편은 좋은 성품과 내면의 열매를 통해 믿지 않는 아내를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와야 해.”라고 강압적으로 하거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너 교회 안 가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어!”라고 잔소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가는 것마저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하시면서 목덜미를 잡고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는 대신 남편과 아내가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격과 오래 참는 태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대부분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의 전도는 자기 의에 빠져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내적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존중, 인격적인 태도, 따뜻한 말과 행동,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저 정도의 인격이면 나도 한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복종은 장식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벧전 3:3-4)

3절의 단장은 원래 뜻이 ‘cosmos’, 즉 질서 있게 정돈된 우주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cosmetic)이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자매님들께서는 외모를 가꾸고 단장하십시오. 물론 형제님들 중에서도 단정하게 단장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모로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즉 단장은 ‘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만으로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천 자매님들에게 외적 치장보다도 내적인 단장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여인들은 파티가 많아서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매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적 단장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외적 단장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곱게 화장하고 머리를 잘 가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적 단장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고리로 치장했다가 그것을 떼어 내면 그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멋있게 머리를 다듬거나 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펴도 풀립니다. 그런 단장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성경은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속사람이 변화된 내적인 단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장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남편들도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태도로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단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매님들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단장으로

무장하여 남편을 설득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복종하였다고 말씀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벧전 3:5-6)

성경은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여인들이 외적인 치장이 아닌 내적인 마음의 단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는 단 두 명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라이고 다른 하나는 창녀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대단히 귀중하였던 여인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사라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매우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하

나눔께서 주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던 그 땅에 마침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 자기 아내 사라의 외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창 12:13)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땅에서 온 사라라는 여인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파라오도 듣고 사람을 보내 사자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하였고 사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상황 즉 대단히 악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벧전 3:6)라는 말은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상황에 처했지만 남편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아내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라고 했으니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남편을 존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요청하자,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순종하여 음식을 준비하며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부르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매 (창 18:12)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남편을 ‘내 주인’으로 존중하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벘전 3:6)

즉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매님들은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사라의 본보기를 잘 따르는 자매님들이 그녀의 딸들이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부에게 주는 이 본문 전체가 일곱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섯 절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고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가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예속되어 거의 종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으로 지내던 사람들, 아내로 지내던 여성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억압받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평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 종이나 여성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말 그대로 너무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우려의 차원에서 여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결코 방종에 이르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그들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매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이 여섯 절로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께서 이 말씀의 분량만 보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남편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편들이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지, 남편

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악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벧전 3:7)

첫째,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어떻게 생깁니까? 공부를 통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편들은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아내의 마음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저도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이리이러한 뜻이겠구나.”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전혀 다른 뜻이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대체로 단순해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아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듯이 아내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와 함께 지식에 따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읽듯이 아내의 마음을 읽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

성에서 왔다고 할 만큼 서로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결혼 전 상담을 진행해 온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 상담을 받으러 오면 양쪽에 종이를 나누어 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 가지를 성실히 적어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적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을 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결혼하는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결혼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결혼하니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 4:6).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지식이 없어서 결혼 생활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 보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이제 갓 결혼한 형제들,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형제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를 연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동거하다’는 말은 단순히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부부는 단지 공간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월급도 그대로 주고, 차도 사 주고, 집도 사 주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나 여자는 월급이나 차나 집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결혼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더 많이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동거입니다. 단지 한 집, 같은 방에서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거는 아닙니다. 형제님들이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꽃도 많이 피고 하니 공원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걸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바쁘니 다음 주에는 꼭 한 번 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아내와 함께 두 시간 동안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공원에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 해도 벚꽃이 피는 이 시기에 같이 걷는 것은 약 30번 또는 40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연장해 주시면 30번 또는 40번 더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어 같이 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거입니다.

남자들의 경우 승진이나 명예, 골프나 낚시 등과 결혼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화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가서 같이 보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고 돌아오는 것,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고 좋은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있다면 같이 가 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동거입니다. 단지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동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요? 그것이 동거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동거입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너는 마음대로 해라.” 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도맡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동거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만 가정에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셋째,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 구절에 이어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honor’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honor’를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이들에게 줍니다. 즉, 대다수 사람들은 여왕에게 존경과 예우를 다 줍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매우 찡찡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존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상 아내를 존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존중은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아내가 “아, 나는 정말 여왕처럼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내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그것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냐 하면, 바로 결혼하기 전 데이트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싫든 좋든 “내가 따르겠다.” 하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남자와 여자가 100미터를 같이 달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항상 남자가 이길 것입니다. 남자가 육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100미터, 남자 100미터 이렇게 따로 나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여자는 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아도 많은 경우 여자가 더 연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 아담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먼저 여자인 이브에게 다가갔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여자를 유혹하여 먼저 죄를 짓게 한 후 여자를 통해 남자까지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여자가 연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들은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갈비뼈는 몸의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내는 남편이 덮어 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보호받고 보완되어야 할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는 나보다 연약한 존재다.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다. 내가 보완해야 할 존재다.”라는 인식을 남편들은 항상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베드로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각자 개인으로 서게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초점은, 아내가 그렇게 연약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상속의 은혜를 누릴 때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측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월등한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한 상속자라는 점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동일하게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회중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저 역시 목사로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기도 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고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버지”라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 생활을 잘해야 기도 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기도 생활이 잘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잘하게 되면 기도 생활은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고 아내에게 악한 언행을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든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되면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아내에게 더욱 잘해야겠구나.’

남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파트너입니까, 경쟁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파트너가 되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동역자인가? 아니면 서로 매사에 싸우고 충돌하며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존재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남편을 세우기 위해, 아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존재입니까?

셋째, 우리는 잠정적이고 외적인 어떤 열정이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적인 덕과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부분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날이 갈수록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이 갈수록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느끼며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섯째,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감정을 느끼든지 상관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혹시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실제로 들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삶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결혼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과거는 뒤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다시 바르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이제부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남편들은 “이제부터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들을 다 잊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어

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사회를 형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핵심 요약**1. 말씀대로 살되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당한 대우와 인내를 본보기로 제시하며, 부부 관계에서도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권면한다(벧전 2:21).

2. 아내의 복종은 권위 질서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하며, 이는 열등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조에 순종하는 것이다(벧전 3:1-2).

3. 아내의 복종은 불신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내가 말이 아닌 경건한 행실과 존경심으로 남편을 감화시키면, 말씀이 아닌 삶으로 남편이 주께 돌아올 기회를 제공한다(벧전 3:1).

4. 아내의 참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온유한 영에서 비롯된다.

아내는 외적인 단장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값진 내적인 단장,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살아야 하며, 이는 남편에게도 아름답게 보인다(벧전 3:3-4).

5. 아내는 사라처럼 순종하되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내 주'라 부르며 순종했고, 이러한 믿음과 순종은 믿는 자매들에게 본이 된다(벧전 3:6, 창 18:12).

6. 남편은 지식을 갖추어 아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남편은 성경뿐 아니라 아내를 연구해야 하며, 말없이 함께 살면서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진정한 동거를 실천해야 한다(벧전 3:7 상).

7.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한다.

아내는 육체적·영적으로 더 약한 존재이기에 남편은 아내를 여왕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며, 둘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다(벧전 3:7).

8. 결혼 생활의 질이 기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괴롭게 하면 기도 응답이 막히며, 바른 결혼 생활은 바른 기도 생활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벧전 3:7).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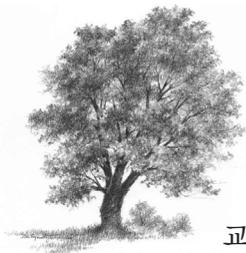


7장

결혼의 성공 요소: 오래 참음

¹그러므로 주의 간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²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³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1-3)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아내의 복종이나 남편의 사랑이 실제 삶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접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고 결혼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부부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를 따로따로 보면 정말 선남선녀인데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즉 ‘오래 참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구조: 교리와 실행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는 교회를 위한 서신을 쓸 때 서신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에 기초한 실제 삶에 대해 다룹니다.

에베소서의 경우 총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마귀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셔서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 곧 예수님의 교회라는 그분의 몸속 속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러한 교리를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엡 4:1)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약한 자가 자신의 사정을 진심으로 들어달라고 애타게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말씀을 선포했던 에베소 교회, 자신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

히 성령님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뜻을 꺾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결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주의 갇힌 자’라고 표현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하듯 부드럽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상속 재산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바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간청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엡 4:2)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lowliness’라고 되어 있습니

다. 이는 곧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생활하다 보니 매년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면 여러 동아리들이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걸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JOY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JOY의 뜻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입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그다음에, 나 자신은 맨 마지막에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바울은 ‘온유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목사가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 또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평을 위해 참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는 ‘longsuffering’ 혹은 ‘long-tempered’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과 반대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영어로 ‘short-tempered’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오랫동안 참아 내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서로를 참아 줄 수 있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이고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이라는 띠로 서로를 하나로 엮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그 결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오해,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혼으로 이해하고 그런 맥락에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몸을 지켜 나가기 위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서로를 참아 주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서의 하나님의 성품 즉 오래 참음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 참음

요즘 세대는 한마디로 참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인스턴트로 간편화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타는 것, 보는 것, 읽는 것, 모든 것이 인스턴트입니다.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도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받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런 것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는 3분간 전화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들었고 전화 연결도 어려워서 “여보세요.” 하면 한참 후에야 응답이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제 딸들과 아침저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도 간단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간편하고 인스턴트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는 ‘지금 당장 주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에 익숙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성도들 역시 무언가 빨리빨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인스턴트 방식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라면 끓이듯 금방 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가정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편견, 고집,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비교적 인자하고 부드러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는 스타일의 목사님이라면 상담 요청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가운데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요?”라고 울면서 말씀하실 때 저 역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어느 때까지인가요?” 만약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님께서 “목사님, 제 시어머니가 오늘이 고비입니다. 병이 나올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이 고비인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처럼 손을 얹기만 해서 즉시 병이 나

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라 하면 사랑, 기쁨, 화평 정도만 생각하는데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이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Long-suffering 이라고 표현되는 이 오래 참음이 성경에는 총 17번 등장합니다. 그중 4번은 구약에, 13번은 신약에 등장하는데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보여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을 이해하고 우리 역시 많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배우자도 알게 되

며 자녀들도 알게 되고 직장에서의 상사도 알게 됩니다. 결국 결혼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오래 참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비난받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오래 참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래 참음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속성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인 오래 참음을 실제로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 돌판들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하여 그 돌

판들을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며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출 34:4-5)

여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라고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어떤 존재의 인격과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그분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출 34:6)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을 헐박하여 귀고리를 다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놓고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라고 외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

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는데 이제 와서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곧 다른 남편을 따른다는 것이며 이는 간음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시점은 주전 1500년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간음과 같은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800년이 지난 주전 720년경,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을 숭배하며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 (호 1:2)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해도 누가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됩니다. 이 내용이 호세아서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멜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시 가서 창녀 짓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포도주 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하라, 하시므로 이에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일 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호 3:1-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며 자기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가운데 이 백성이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시리아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시고 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을 통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린당하는 삶, 압제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반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아내인 유다 백성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참아 주셨습니다.

또다시 참으시고 참으시는 가운데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 땅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상을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오래 참으시며 약 1,90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을 다시 중동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오랜 세월 지속되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내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려 오셨으며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아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한 해, 두 해 정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과거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지내던 그 시절에 지은 죄들을 생각할 때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롬 6:20-21)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음을 생각하며,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즉 동성애에 빠졌던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불의를 행했던 자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했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일들을 짚으며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벧전 4:3)

형제님들 중에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색욕과 정욕, 과음과 환락 등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과거에 우리가 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죄에 대해 심판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오래 참고 또 참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은 구원받기 이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습니다. 그는 율법 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 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딤후 1:12-13)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참아 주셨던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1:16)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오래 참음으로 즉 모든 상황과 모든 범위에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성모독을 일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며 그들에게 해를 끼쳤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하나 다 참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참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단순히 구원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 주셨습니까?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저도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음 외에는 결혼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어려움을 끼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나도 배

우자와 자녀를 오래 참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래 참아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첫째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에 우리가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니 우리 역시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르던 수염을 사람들이 뽑고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을 창으로 찌르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 예수님의 얼굴이 흉하게 부어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가시의 독으로 인해 그분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다.”(사 52:14)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였고 (벧전 1:3)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벧전 1:5)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벧전 1:6)

이 말씀을 결혼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1:7)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련이 되어 결국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선한 싸움의 대가를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

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할 둘째 이유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 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즉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시 78:5-8)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된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기 실행

이제 오래 참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잘 해결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걸 고쳐야 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된 사례는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하는 진짜 원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엡 6:12)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원수는 배우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벧전 5:8)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자식들을 통해, 부모를 통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래 참으면서 배우자의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잠 15:1)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가 내게 행한 좋은 일들, 내 배우자의 좋은 습관, 좋은 성품 등이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만 하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가꿔 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려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와, 제 남편과, 아니면 제 자식과, 제 부모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래 참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책도 읽으셔야 하고 가능하면 상담도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에게 상담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

지 적극적으로 부부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수고와 눈물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니 참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오래 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종 결론

결혼과 가정에 대해,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 최종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결혼 생활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시고 배우자를 대하시면 우리의 결혼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뒤에 마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대해야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딤후4:7-8)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선한 싸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생활에 적용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이라고 하는 선한 싸움, 가정이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다마치고 저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왕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어려운 부부 생활 속에서, 힘든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이 선한 싸움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말겨야 합니다.

우리 같은 미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내려다보실 때에 분명히 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정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핵심 요약**1. 교리 위에 세워진 실천의 삶**

에베소서처럼 바울은 항상 먼저 교리(1-3장)를 설명한 후, 그 교리에 기초한 실천(4-6장)을 강조한다. 결혼과 가정도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2. 오래 참음은 하나님 성품의 핵심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본성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태도이다. 결혼 생활은 인스턴트가 아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여정이다.

3.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 주신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00년 이상 참아 주셨고, 지금도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다.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불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

4. 오래 참음은 결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실망은 인내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성화는 곧 오래 참음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5. 오래 참음은 구원의 결과이자 믿음의 단련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잠시 근심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 한다. 이는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받을 믿음의 단련이다(벧전 1:6-7).

6. 오래 참음은 자녀와 다음 세대에 본이 된다.

시편 78편 말씀처럼, 오래 참는 부모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 신앙의 본이 되며,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심어 준다.

7. 오래 참음의 구체적 실천 방안

- ① 나 자신을 돌아보고,
- ② 배우자를 원수로 여기지 말며,
- ③ 말씀 묵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 ④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며,
- 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 ⑥ 적극적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 ⑦ 영원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

8. 오래 참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결혼 생활도 복음처럼 선한 싸움이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관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에, 이 모든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딤후 4:7-8).

크
리
스
천
의
결
혼
과
가
정



친밀함의 일곱 단계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떼으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 2:21-25)





얼마 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한 형제님께서 <친밀함의 일곱 단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형제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제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 간의 친밀감도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교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시며, 관련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 글은 매튜 켈리(Matthew Kelly)라는 사람이 지은 『The Seven Levels of Intimacy』(친밀함의 일곱 단계)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혹은 주변 분들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곱 단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성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친밀함의 일곱 단계’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영어로 된 이 책 표지의 중간 부분에 소재목으로 「The Art of Loving and The Joy of Being Loved」, 즉 「사랑하는 기술과 사랑받는 기쁨」이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술’이라는 말은 곧 ‘사랑하는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어 아마존에서도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 저자인 매튜 켈리는 호주 출신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마존에서 킨들 버전으로 구매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이 책은 단순히 친구 간의 친밀함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주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책 제목도 ‘Intimacy’(인티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티머시(intimacy)라는 단어는 부부 혹은 연인 사이의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지,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Matthew Kelly’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 구독자가 10만 명이상이며 매주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영상들을 보며, 이 사람이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관한 다양한 책을 저술했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여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표현이나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의 일곱 단계』에 담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되새겨볼 만한 것으로,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하

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해 두고 온 국민이 이를 지키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5월을 가정의 달로 공식 지정하고 부부 및 부모 자녀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장려합니다. 꼭 5월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도 잘 벌고 좋은 차도 타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하면 모든 게 잘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간에 친밀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곧 믿음 생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성령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저 일하러 교회에 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이 글을 읽고 부부끼리 대화하며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찌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먼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와서 ‘결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아직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주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을 ‘큰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엡 5:31-32)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려면 그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 우주 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기원,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알려면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인간의 기원 등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곧 24시간짜리 하루 여섯 번을 사용하여 지구와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창 1:3)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것들, 바닷속과 땅속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 1:26-27)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둘밖에 없습니다. 남자(Male)와 여자(Female),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과정은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남자만 만드신 구절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창 2:18)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창 2:19-20)

이 말씀은 아담의 지적인 능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가축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셨으나 그 가운데 아담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짐승들 - 짝이 있는 모든 동물들 - 을 아담 앞에 데려오심으로써 아담 스스로가 '나는 지금 혼자인데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는 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에게도 합당한 조력자가 있어야 그가 남자로서의 역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내게도 조력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은 이후,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그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

서는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뒤,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창 2:21-22)

즉,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처럼 흠으로 만들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결국 흠에서 유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심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을 주례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제도가 바로 이 결혼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던 그때 아담은 그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창 2:23)

이 말씀은 아담이 말 그대로 기쁨의 탄성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는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 조력자를 지어 주셔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자기 삶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단순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일부분으로서, 남자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리며 다시금 반성하고 회개하곤 합니다. 아내는 바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 표현은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 2:24)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육체가 되면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친밀함, 즉 인티머시(intimacy)가 형성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

라. (창 2:25)

이는 진정한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마음과 몸을 완전히 열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동일하게 사용되며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 까지도 포함하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2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때,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때’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앎’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

성경은 부부의 친밀함에 대해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샘이 복되게 하고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잠 5:18-19)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만족하라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아들이야, 네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꺼안으려 하느냐? (잠 5:2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피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결혼한 삶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잠 18:22)

또 성경은 좋은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해 줍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잠 19:14)

특히 잠언 31장은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 현숙한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며,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는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겠고 그녀는 평생토록 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잠 31:10-12)

결론적으로 성경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본질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깊이 서로를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연인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과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의 첫 장을 보면 “노래 중의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아 1:1)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그분께서 자신의 입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아 1:2)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아내나 신부가 신랑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다.” (아 1:2)라는 고백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장 16절에는 신랑을 향한 칭송의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시는도다. (아 2:16)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부부의 친밀함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고전 7:3)

즉,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하며 남편도 아내에게 동일하게 애정을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고전 7:4)

즉, 이것은 부부 사이에 육체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전 7:5)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육체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은 건강한 결혼 생활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이유로 부부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소홀히 하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좋은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을 서로 공유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 기초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대 가정의 문제

그런데 근래에는 결혼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친밀함이 사라지고 어느새 진부한 관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만 부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방만 공유할 뿐 영혼은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룸메이트(room mate)일 뿐, 소울메이트(soul mate)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란 단순히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이 세상의 작가들도 인간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 룸메이트로 끝난다면 그 결혼은 결국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진정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친밀함의 일곱 단계’가 필요하다고 세상 작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부들조차 시간이 흐를수록 친밀함이 사라지고, 결국 집 안에는 피폐함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예배 중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이들을 위선자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심정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엡 5:31-33)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큰 신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레이트 미스터리(Great Mystery)’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매우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신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부부 관계 역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신비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라는 관념적인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에 있는 배우자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아내라는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신비를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한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함을 유지할 때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벧전 3:7)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남편에 대해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의 일곱 단계

『친밀함의 일곱 단계』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판되어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중고 서적으로 몇 권이 남아 있기에 저도 한 권을 구매했습니다.

이 책은 영어 원서로 보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1-5장), 2부(6-13장), 3부(14-16장)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왜 이 책을 쓰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부는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이 요약하여 글로 올려 주신 부분이 바로 이 2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는 결론 부분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블로그 등에서 이 책의 내용이 인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2부의 ‘일곱 단계’ 부분만을 소개하고 있고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다루는 ‘왜 이 책이 쓰였는가’, ‘친밀함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내용은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책의 1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부부를 위한 책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님들과의 관계를 위한 책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된 것입니다.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오늘날 많은 부부가 공통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부는 현대 부부들의 여러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를 친밀함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1장 제목은 <부부간의 육체적 관계가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남편 쪽에서 이런 오해가 많은데 육체적인 관계만 잘하면 부부간에 친밀함이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원서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ex is not intimacy.” 즉, 성관계는 친밀함 자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육체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친밀함을 육체 관계로만 생각하면 이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부간의 친밀함을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나는 공통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친밀한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함께 다닌다든지,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교회를 함께 다닌다든지,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우리는 친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진정한 친밀함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친밀함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친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올 때 친밀함이 없다면 부부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친밀함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2부에서 7개의 장을 통해 친밀함의 일곱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곱 단계에 도달해야 진정한 부부간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상투적인 인사말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주 가벼운,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마주쳤을 때 미국 사람들은 “How are you doing?”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I’m fine, thank you.”라고 대답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정도가 친밀함의 가장 얇은 단계이며 이것은 감정도, 정보도, 어떤 의미 있는 공유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수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나?” 이렇게 묻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아무런 친밀한 대화 없이 지낸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방식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 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이처럼 우리가 얇은 관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사실과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인사 이후에 날씨가 어떠한지, 뉴스나 연예계 소식, 스포츠 경기 결과, 또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화만으로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털어놓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연예인 이야기를 하거나 날씨 등 이런 사실 위주의 대화는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가볍게 아는 사람들과는 이 정도면 무난하겠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 날씨, 뉴스, 일상 이야기 수준에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3단계: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 공유를 넘어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처럼 정치적 이슈가 많은 때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주제를 두고 부부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문제다.”, “애국심은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어느 집회에 참여해야 하겠다.”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문화에 대한 감상, 취향에 대한 의견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상대에게 나라는 사람의 일부를 보여 주게 됩니다. 친구에게 내 정치적 견해를 말하거나 어떤 영화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나누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 대화의 깊이는 더해지겠지만 동시에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지게 되지 않겠

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대화까지 도달하면 갈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해도 이 단계는 여전히 상대방의 내면 깊은 감정이나 생각을 충분히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친밀함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견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멈춰 서 버립니다. 사소한 의견 충돌로 멀어지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시 피상적인 대화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흔히 ‘인간관계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그 관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마리아 칼라스」라는 영화를 보러 갔 습니다. 이 여인은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영화는 그녀의 삶을 다룬 내용으로 음악도 훌륭했고 내용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저는 제 아내에게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며 이야기했고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며 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기억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영화관에 가는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부부가 이처럼 대화 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라면, 이는 이미 친밀함으로 향하는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은 비로소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를 넘어 진짜 친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달라도 이해해 보려 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 충돌을 두려워해서 대화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의견 한마디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단계: 희망과 꿈을 나누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희망과 꿈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인생의 목표 등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장 바라는 꿈이나 인생의 목표를 털어놓는 일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앞으로 5년 후에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또는 인생에서 꼭 해 보고 싶은 일들을 상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희망을 솔직히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꿈을 이야기했다가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곤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꿈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둘이 함께 미래를 그려 보기도 하고 서로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자가 되어 주기도 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방식대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부부는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원래 살던 집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송도 바닷가 근처 아파트를 보고 너무나 감명받아 당장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 집을 팔지는 못했던 터라 전세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바다나 석양의 아름다움을 그렇게까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그 바다와 석양을 바라보며 큰 위안을 받고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내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바라는 소망이나 작은 바람이라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에게 나의 꿈과 희망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그런 말을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단계: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한 부부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녀온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서 그 일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는 상대에게 내 마음이 문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내 진심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솔직해질 때 상대방은 비로소 내 기쁨과 슬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역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 가며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깊이 교감하게 되는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를 내어 주며 눈물을 받아 줄 정도로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 힘들음을 배우자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주 합니다.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조사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워.” 최근에는 마녀사냥과 같은 무분별한 행태가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말하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감정 역시 공유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의 감정까지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공감해 주는 그런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단계: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신이 가진 약점이나 과거의 상처, 부끄러운 기억들까지 상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솔직한 관계, 즉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

이나 과거의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해 보이고 싶어서 실수나 실패
답을 숨기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이
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식과 위선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
짜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런 가면을 벗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마저
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관
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취약함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
다. 자신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
는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배우자에게 “사실 나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
어.” “내겐 이런 상처가 있어.”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친밀하지 않다
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위선
과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 주었다면
이미 6단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약점과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여전히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대가 나를 판
단하기보다 이해하고 감싸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에 이 일은 가능합
니다. 그리고 내 고백을 들은 상대는 나를 위로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내
곁을 지켜 줄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해 줄지
언정, 결국에는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주는 사람이기 때
문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결점까지 받아들이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어
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배우자에게 나의 가장 약한 모습까지 보

여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배우자가 자신의 상처를 내게 고스란히 털어 놓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단계: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는 단계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는 단계’입니다. 이는 친밀함의 절정으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 생각, 꿈, 상처까지 모두 공유한 두 사람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에서까지 협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인생을 서로가 완전히 돕고 지지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란 상대의 행복과 성장, 그리고 삶의 안녕에 꼭 필요한 것들을 뜻합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버팀목이 되고 영혼까지 보살펴 주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쳐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굳이 말로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알아차리고 채워 주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도 상대를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주고 상대도 나를 위해 헌신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친밀함의 유대를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 주며 하나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의 실현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1-32)

이 관계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친밀함을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나는 내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람인가? 물질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만, 결혼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꿈이 아니라 배우자의 꿈을 이루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 내 배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존재, 즉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존재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참된 목적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친밀함은 몇 단계에 있는가?

매튜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관계는 일곱 번째 단계에 도달해야 진정한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첫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많아야 세 번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부부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1단계: 상투적인 인사말의 단계

2단계: 사실을 공유하는 단계

- 3단계: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
- 4단계: 희망과 꿈을 나누는 단계
- 5단계: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
- 6단계: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단계
- 7단계: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는 단계

이 일곱 가지 단계는 순서대로 쌓아 가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갑자기 7단계로 건너뛰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에서 어떻게 곧바로 7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1단계부터 2단계, 그리고 3, 4, 5, 6, 7단계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씩 밟아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그 배우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3단계 수준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사실상 4단계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3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관계의 성장은 멈추고 맙니다. 그 무덤을 탈출하고 일곱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밀함은 단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가고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즉,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는 태도를 갖

는다면 친밀한 관계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포용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친밀함에 대해 대화형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인 ChatGPT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친밀함의 일곱 단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라고요. 그러자 아주 인상 깊은 명언 하나를 알려 주었습니다. “친밀함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능력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밀함이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친밀함의 일곱 단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서에 성도들끼리의 친밀함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히 10:23-25)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권면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빌 4:1)

친밀함이 없이는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dearly belov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이의 진실한 교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론

친밀함, 특히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식에서 주례자로 서셨고 남자와 여자가 그런 친밀함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친밀한 관계를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덕목은 결혼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친밀함은 단순히 사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각 단계에 따라 정직한 대화를 꾸준히 훈련해야 하며, 서로의 약점을 포용하려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친밀한 부부 관계, 부

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친밀함을 깨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만약 그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고 결국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때 문제를 치료하고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더욱 깊은 친밀함이 필요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친밀함이 잘 유지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서로 친밀하다고 주장한다 해도 진정한 친밀함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과와의 친밀함이며 이는 공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새롭게 하고, 친밀함을 가꾸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히 부부간의 친밀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친밀함의 일곱 단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 성도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친밀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

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롬 12:15-16)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부부간의 친밀함을 뛰어넘어 성도들 간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함의 일곱 단계’는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 가며 성장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화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츠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시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03230

ISBN 978-89-951587-8-4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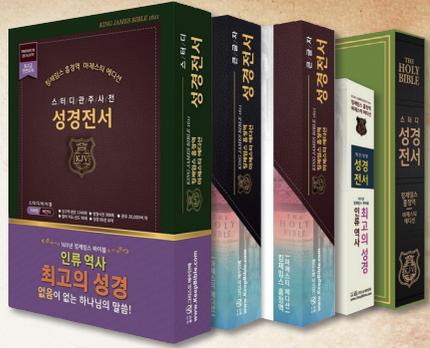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리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깁,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스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부와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스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책스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학교 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중달론 충경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